

재속 프란치스코회 버지니아 성 보나벤투라 형제회

하느님을 향한 인간 정신의 여정

제 07-09호 2007년 9월 16일 발행

St. Bonaventure Fraternity of the Secular Franciscan Order

월례회: 매월 셋째 일요일 1:30 PM 반모임: 1구역 둘째 일; 2구역 첫째 일 웹사이트: kr.blog.yahoo.com/bonasfo
장소: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66 복음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99



1회와 2회 및 수도3회의 회규도 이와 비슷한 말로 시작된다. 이 말은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당신의 가족에게 주고자하신 삶의 핵심적인 방향이다. 성인은 유언(14)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친히 거룩한 복음을 따라 살도록 나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이 재속프란치스코회원의 삶의 핵심임을 알 수 있다. 복음이 우리 삶의 규범이 되어야 하며, 재속프란치스코 회원 각자의 생각, 행동 그리고 행위는 복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복음이 자기 자신의 생활이어야 하며 생활 체험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삶은 복음을 살아가는 것이고 복음을 살아간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마음으로 동화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복음을 사는 것은 거룩한 영의 활동에 이끌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이다. 따라서 프란치스코 가정에 입회하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의 생각, 감정 그리고 행동을 가능한 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마땅할 것이다. 복음은 모든 프란치스코 영성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다. 거룩한 복음은 구세사를 통하여 계속되는 그리스도의 오심에서 그 절정을 드러내고 이룩하게 되는 모든 거룩한 계시와 관한 “기쁜 소식”이다. 우리의 성소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업적을 쌓거나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도 아니다. 프란치스코 삶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복음을 실행하는 것 뿐이다.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따라 복음을 실행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음을 꾸준히 읽고, 듣고, 묵상하며 묵상한 바를 충실히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성 프란치스코는 1209년 2월24일 성 마티아 축일에 포르치운콜라 성당에서 복음 말씀을 듣고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순종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복음을 문자 그대로 지켰다.

둘째, 단순한 마음으로 곧 오직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느끼고 받아들이려는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복음에 따른 그의 생활은 오직 하느님의 뜻만을 실천하는 삶으로써 마음의 순결과 단순함에 기초를 둬으로써 가능하였다.

셋째, 복음은 예수님과 만나는 자리이므로 무엇보다도 ‘듣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성모 마리아와 요셉의 모범이다.

넷째, 예수님을 구체적인 생활에서 중심이자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곧 예수님을 생활의 중심으로, 영감을 주시는 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예수님 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이다.

다섯째,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그 누구보다도, 그 어느때 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더 철저히 실행하여야 한다.

끝으로, 모든 피조물 안에서 그리고 일상의 삶을 통하여 하느님의 선을 관상하고 관상한 바를 행동과 말로써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야 한다.

- 회개하는 형제들의 삶에서

하느님은 선택하신 이에게 여러 가지 특별한 선물을 주셨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섯 상처를 그대로 박아 주시는 것이다. 이 오상을 가장 처음 받으신 분이 성 프란치스코이다. 프란치스코는 그리스도를 너무도 완전하게 본받았기 때문에 생애 말년 무렵에 주님은 그의 몸에 당신의 오상을 새겨주심으로써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를 충실하게 본받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그를 드러내 주셨다.

9월 17일 성 프란치스코의 오상 축일



성인은 돌아가시기 2년 전인 1224년 자신이 늘 하던 대로 미카엘 대천사 축일 전 40일 동안 기도와 단식을 하러 라베르나 산으로 갔을 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성 보나벤투라는 다음과 같이 이 일을 말해주고 있다:

"성 십자가 현양 축일 아침 산에서 기도하고 있던 중, 프란치스코는 불타오르는 여섯 날개가 달린 세라핌 천사가 하늘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모습은 재빨리 그 가까이 내려와서는 공중에 멈추어 섰다. 그때 그는 십자가에 못박힌 사람, 즉 양손과 발을 쭉 뻗친 채 십자가에 못박힌 사람의 상이 날개들 중앙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날개들 중에 두 날개는 그의 머리 위로 들어 올려져 있었고, 또 둘은 날기 위해 뻗쳐져 있었고

한편 나머지 두 날개는 그의 몸을 감싸고 있었다. 프란치스코는 그것을 보고 놀라 당황하였으며 그의 마음은 기쁨과 슬픔이 섞여 흘러넘쳤다. 그는 그리스도가 세라핌의 모습을 띠고 그토록 은혜 가득히 자기를 배려해 준 방법에 대해서 대단히 기뻐했으나 그분이 십자가에 못박히셨다는 사실이 그의 영혼을 동정심으로 가득찬 비애의 칼로 찔렀던 것이다. 그 환시가 사라지자 그의 손과 발에 십자가에 못박힌 사람의 환사에서 본 것과 똑같이 못자국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은 이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당신의 모습으로 변화시켰다."

+++

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세상이 점점 차가워지던 때 당신 고통의
거룩한 상처를 거룩한 사부 성 프란치스코의
몸에 새로이 새기시어, 저희의 마음이
당신의 거룩한 사랑의 불길로 불타오르길
원하셨으니, 그의 공로와 중재로
저희가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게 허락하소서.
영원히 살아계시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프란치스코는 자기 내면을 깊이 꿰뚫어보며 생각하기를 이 세상에는 자기보다 더 쓸모없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가장 큰 죄인이며, 잃어버린 영혼이자 악에 떨어진 영혼이라고 단정했다. 이런 절실한 필요성 때문에 그는 하느님을 향해 부르짖었다: "주여, 이 비천한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하여 뽀기오 부스토네 위에 있는 적막한 동굴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저는 저의 악
때문에 모든 것이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선으로 인하여
모든 것에 희망을
가집니다.”**

된 것이다. 한 영혼이 철저한 불신 속에서 괴로와하면서도 신뢰심과 희망과 사랑으로 하느님께 매달릴 때 일어나는 그런 큰 기적, 곧 “의화”(Justification)의 큰 기적이었다. - “저는 저의 악 때문에 모든 것이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선으로 인하여 모든 것에 희망을 가집니다.” 이것이 프란치스코가 하느님께 바친 내밀한 기도였다.

- 요르겐센에서

들풀

류시화

들풀처럼 살라
마음 가득 바람이 부는
무한 허공의 세상
맨몸으로 눕고
맨몸으로 일어서라

함께 있되 홀로 존재하라
과거를 기억하지 말고
미래를 갈망하지 말고
오직 현재에 머물라
언제나 빈 마음으로 남으라

슬픔은 슬픔대로 오게 하고
기쁨은 기쁨대로 가게 하라
그리고는 침묵하라

다만 무언의 언어로
노래 부르라
언제나 들풀처럼
무 소유한 영혼으로 남으라

아름다운 사람

-이성선

바라보면 지상에서 나무처럼
아름다운 사람은 없다.

늘 하늘빛에 젖어서 허공에 팔을 들고
촛불인 듯 지상을 밝혀준다.
땅속 깊이 발을 묻고 하늘 구석을 쓸고 있다.

머리엔 바람을 이고 별을 이고
약기가 되어온다.

내가 저 나무를 바라보듯
나무도 나를 바라보고 아름다워할까
나이 먹을수록 가슴에
깊은 영혼의 강물이 빛나
머리 숙여질까

나무처럼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고 싶다.
나무처럼 외로운 사람으로 살고 싶다.

혼자 있어도 놀이 찾아와 빛내주고
새들이 품속을 드나들며 집을 짓고
영원의 길을 놓는다.
바람이 와서 별이 와서 함께 밤을 지낸다.

스스로 자기를 아프게 하지 말라

모두가 지난 일이지요
다시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잊어버려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나 혼자만이 겪는 고통은 아닌 것이지요

주위를 돌아보면
나보다 더 더한 고통도 있는 거지요
하지만 모두가 극복하려 했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자꾸 걸어왔던 슬픔의 길로
되돌아가려 하지 말아요
앞으로 가야 할 삶의 길에도
슬픔의 시련은 있을 테니
지금의 고통으로 스스로를 성숙하고
강하게 하는 계기로 삼아요.

힘들고 아픈 이야기만을 쓰려 하지 말아요
복잡한 생각은 파고들수록
다른 비극을 꾸며내니까요.
향을 피우고
고요한 음악을 벗삼아 생각을 정리해요

세상사 모두가 꿈일 뿐이지요
꿈속의 주인공 역시 나인 것인데
무엇을 위해 자기 스스로를 아프게 하나요.

지금은 당장 힘들겠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지요
자기를 위해 밝은 햇살로 고개를 돌려요
꿈에서 깨어나면
또 다른 내일이 맑게 개어있을 테니까요

- 원성 스님의 "마음" 중에서

보나벤투라 형제회 소식난

✦ 조안드레아 신부님께서 우리들의 영적 보조로 9월13일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월례회 후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한데레사 자매택에서 환영 인사가 있었습니다.

✦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보나벤투라 형제회에 지원하신 분들을 축하하며 환영합니다.

✦ 10월3일(수) 사부님 축일 전야제가 7시부터 DC의 Franciscan Monastery에서 있습니다.

✦ 10월3일 사부님 축일을 맞아 9월25일부터 9일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9월17일(월) 김병두 신부님께서 주관 하시는 양성 교육이 저녁 8시부터 MD 수도원에서 있습니다.

✦ 9월9일 MD 클라라 형제회 월례회때 강 수연 마리아 자매께서 초청을 받아 국가 형제회 피정강의 내용을 전해주었습니다.

✦ 9월 구역모임: 제1구역-9월16일 (김점마)
제2구역-9월2일 (최마리아)

기도 중 기억합시다 ...

- ✦ 보나벤투라 형제회의 새 지원자를 위해 ...
- ✦ 9월 20일 영국으로 공부하러 떠나시는 김안티모 신부님을 위해 ...
- ✦ 새로 오신 조안드레아 신부님을 위해 ...
- ✦ 병중에 있는 메릴랜드의 이레네 자매를 위해 ...
- ✦ 보나벤투라 형제회와 회원 가족들을 위해 ...
- ✦ 세계의 평화를 위해 ...



9월 월례회 시간표

1:00 PM - 다과
1:30 PM - 양성 교육
3:00 PM - 월례회/미사

✦ 미사성가: 지침서 ✦

입당: 2번 태양의 찬가
봉헌: 32번 평화를 주옵소서
성체: 42번 천사의 양식
마침: 1번 프란치스코처럼 자유롭게

제1독서: 박상태 제2독서: 남엘리사벳
미사해설: 지요한

9월 본명축일을 축하합니다

4일: 곽재옥 로사, 조순우 로사
13일: 지수성 요한 금구
29일: 이계숙 가브리엘라

9월 간식 담당: 곽종무, 이계숙, 최마리아

10월 간식담당: 박상태, 박세종, 조은자

재속 프란치스코회에 대해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더 알고 싶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재속 프란치스코 버지니아 성 보나벤투라 형제회

회장: 한기남 703-425-9445 man5ki@yahoo.co.kr
부회장: 강동훈 703-585-2700 johnkang52@hanmail.net
서기: 김미경 703-680-0274 talmadge01@msn.com

회계: 조순우 703-759-9429 swcsfo@yahoo.com
양성: 강옥희 703-440-8010 margarita222@daun.com
영적보조: 조안드레아 OFM